

# 금속활자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독서의 풍속사 — 5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금속활자가 발명된 시절 인쇄된 책은 단 몇 권에 불과하다. 금속활자본으로 본격적인 인쇄를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면서부터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이 중세의 지식 독점을 해체하고 근대혁명을 이끌어냈다면,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국가에 의해 독점돼 중세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민족이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는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금속활자는 초등학교 꼬맹이에게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족의 자랑거리였다. 한데 이 자랑거리는 지금 나에게 꼭 당혹스럽게 여겨진다. 이 자랑은 해괴한 단세포적 논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랑은 구텐베르크를 제물로 삼고 있다. 보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서양사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위대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일찍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더 위대하다. 이런 단세포적 논법이 금속활자를 자랑거리로 삼는 의식 속에 녹아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문제는 금속활자 자체가 아니다.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한들 그것이 책 몇 권을 찍고만 데 불과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세계 최초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만든 금속활자가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구실을 했던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 금속활자 세계최초지만 조선 태종 때 본격 인쇄해

한국의 금속활자는 말 그대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직지심경》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아니다. 금속활자의 기원은 더 올라간다. 책은 전하지 않지만,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인쇄된 《고금상정예문》과 1239년에 인쇄된 것이 분명한 《남명천화상승증도가》가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말인가? 이것이 금속활자로 찍었던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금속활자의 탄생 이후 고려의 서적은 대부분 목판으로

인쇄됐지 금속활자로 된 것은 아니었다.

금속활자가 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낸 것은 조선 태종 때부터였다. 태종은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관청 '주자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재미자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재미자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제작된 금속활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재미자(1403) / 세종—경자자(1420), 갑인자(1434), 병진자(1436) / 문종—경오자(1450) / 세조—을해자(1455), 정축자(1457), 무인자(1458), 을유자(1465) / 성종—갑진자(1484), 계축자(1494) / 중종—병자자(1516·1519) / 선조—경서자(1588)

모두 13종의 활자가 임진왜란 직전까지 제작됐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은 이 활자들이 모두 '한자' (漢字) 활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이 꼭 흥미롭다. 조선조 금속활자가 안고 있는 문제거리들은 모두 여기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활자가 쉽게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책을 대량 복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량 복제는 지식의 확산, 보급이란 문제와 통한다. 1445년(1447년 설도 있다) 마인츠(Mainz)에서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의의는 그 활자가 납과 주석, 안티몬의 합금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의 독점을 해체하고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을 촉발했다는 것, 민중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독서인구를 증가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근대의 형성에 절대적 수단이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조선의 금속활자(한자활자)는 오로지 한문책만 인쇄했다.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지식인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즉 조선의 금속활자는 소수의 지식인(양반사대부)을 위한 것이었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 15세기 말까지 약 50년 동안에 출판된 책을 초기 간본 곧 Incunabula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4만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쇄소의 수는 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백50개 혹은 1천개였다고 한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약 애초 그가 바란 것처럼 그 자신만 독점하는 기술이었다면, 그것은 역사에서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은 그것의 제한 없는 전파 때문에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점은 변함이 없었다. 물론 조선후기에 민간의 금속활자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인쇄의 주류를 차지한 적은 결코 없었다. 금속활자의 국가독점은 인쇄, 출판 문화의 주역이 국가였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상의 복제와 전파를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고, 조선에서는 오로지 국가가 그것을 독점했는가? 여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 요인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라틴자모'의 차이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자로 쓰여진 책을 어떤 장에도 없이 인쇄하자면 한자 수만큼 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주 쓰이는 글자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니, 실제 필요한 한자 활자는 한자 전체의 수에 몇을 곱해야 할 것이다. 참고삼아 말한다면, 현재 가장 큰 한자 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중문대사전》이 수록하고 있는 한자의 수는 약 5만자에 달한다. 인쇄 과정에서 새로 활자를 만들지 않고 활자를 미리 완벽하게 갖추려 한다면, 최소한 5만자의 10배, 곧 50만자는 필요할 것이다.

**10만자 이상 주조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국가가 인쇄 독점해**

하기야 자주 쓰이는 글자의 범위는 일정하기 때문에 5만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활자의 수는 막대하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금속활자는 한번 주조할 때마다 10



사진은 금속활자로 인쇄한 고려의 《적지심경》(왼쪽)과 구텐베르크의 《45행 성서》.

만자를 넘었다. 재미자는 10만자, 갑인자는 20만자, 갑진자는 30만

자를 주조했다. 영조 48년(1772)의 오주갑인자는 15만자, 정조 1년(1777)의 육주갑인자 역시 15만자, 정조 19년(1795)의 초주정리자(을묘자)는 30여만자였다. 동활자는 아니지만, 최대의 글자수를 자랑하는 것은 정조 16년(1792)에 만들어진 목활자로서 32만자였다. 최소 10만자가 넘는 활자를 제작하는 데는 당연히 엄청난 기술력, 자금, 인력이 소비됐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라틴자모는 영어를 기준으로 할 때 26자×X가 된다. 활자의 절대수가 적다. 그것은 대문자·소문자 등 자체와 활자의 크기에 따라 여러 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래도 수백자를 넘지 않는다. 26자의 활자를 30벌 갖춘다고 해도 겨우 780개일 뿐이다. 여기에 문장 첫머리에 쓰는 대문자와 각종 기호를 포함해도 1천 자를 넘여가지 않는다. 여기에 출현 빈도수가 높은 활자를 더 만들고 출현 빈도수가 낮은 활자를 적게 만든다면, 1천 개의 활자로 공색하지만 책을 인쇄할

“세계 최초도 좋고 민족의 위대한 발명품도 좋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최초주의에 골몰할 것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묻어둘 것인가? 요컨대 금속활자의 최초 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수 있다. 최소한 10만 자가 필요한 한자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한 것이다. 표음문자는 활자의 제작을 값싸고 손쉽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금속활자는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세 질서 강화해**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조선이 금속활자로 책을 대량으로 찍어 보급하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 13년 2월 28일 왕은 좌부대언 윤수(尹粹)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좌전(左傳)은 학자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서적이다. 주자(鑄字, 금속활자)로 이를 인쇄한다면 널리 반포하지 못할 것이니 의당 ‘목판’(木板)에 새겨 널리 간행하도록 하라.”

금속활자는 많은 부수를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부수가 필요한 서적은 목판으로 찍었다. 그렇다면 조선 금속활자의 의의는 무엇인가? 금속활자 인쇄는 목판에 비해 확실히 책의 제작 시간이 짧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미려(美麗)한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금속활자가 마련되기만 하면 어떤 책도 미려한 형태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치명적 결격 사유가 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은 지형(紙型)이나 사진 원판을 남기지 않았다. 책을 찍고 해판(解版)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대량으로 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목판인쇄술은 20세기 전반까지 유력한 인쇄 방법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물론 금속활자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사대부 사회에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다양한 서적을 공급했다. 조선전기에 금속활자로 찍힌 책들은 고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하지만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금속활자는 중국의 역사, 경전, 문학 등의 서적을 찍어냈다. 중세의 질서를 강화하는 책을 사대부들에게 공급했던 것이다.

세계 최초도 좋고 민족의 위대한 발명품도 좋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최초주의에 골몰할 것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묻어둘 것인가? 요컨대 금속활자의 최초 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